



# “자치경찰 일원화, 지자체도 몰랐다”

###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서 소수에 의한 밀실 추진 지적 서법수 의원 “설문결과 13.6%만 찬성... 분리 바람직”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가 깜깜이로 밀실에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변경된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도 국가경찰로 귀속된다.

행안위 소속 서법수 의원(국민의 힘·울산 울주군)은 김창룡 경찰청장

에 대한 질의에서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 모델을 언제 알았느냐”며 “7월 31일 갑자기 발표했는데 지자체도 몰랐고 깜깜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몇몇 소수에 의해 밀실서 결정된 것 아니냐”며 “경찰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5일 동안 경찰관 92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

문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응답자 13.6%만이 일원화 모델에 찬성했고 응답자 64.8%는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국민과 경찰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김영배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존속 여부와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부미형기자



충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민성안정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 4차 추경 7조8000억... + α 까지 푼다

<경기보강 패키지 4조6000억>

### 자영업자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취약층 50만~150만 지원 아동특별돌봄 대상 늘리고 전 국민에 휴대전화료 경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이와 함께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준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교까지로 확대하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000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세회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장도 더 넓게 펼친다.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교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 확산세 꺾여도 산발 감염 여전 신규 확진자 두 자릿수 언제쯤

### 신규 환자 1주일째 100명대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1주일째 1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회복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100명 아래'를 1차 목표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올 확실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00명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하루 이틀 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주말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즉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

다.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큰 틀의 현행 감소세가 유지되면 오는 13일 예정대로 2.5단계를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300명대, 200명대로 줄었고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급속히 감소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무증상·경증환자, 그리고 이들로 인한 중·소규모 집단감염을 꼽는다. 연합뉴스

실제로 최근 발병 양상을 보면 기존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1167명)와 광복절 도심집회(누적 551명) 관련 신규 확진자는 확산하게 줄어들었으나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흐름이다.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날 정오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쿠팡물류센터 감염 사례에서 총 1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과 관련해서 전날 5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5명이 됐다. 광주에서는 북구의 말바우시장 식당 운영자와 방문자, 이들의 가족·지인 등 총 23명이 확진됐고, 울산에선 현대중공업 직원 5명과 직원의 가족 2명이 확진됐다. 연합뉴스

# 의사국시 갈등 평행선 의료계 “추가 시행” 정부는 “검토 불가”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문제를 놓고 접점 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 시행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 시

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외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홈페이지에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행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

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경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의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

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부미형기자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도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도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